

국 내 소 식

통상산업부 강춘수사무관 순직

통상산업부 수화력발전과 강춘수(51세)사무관이 지난 10월 15일 업무상 과로로 순직했다.

고 강사무관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과 국정감사, 전기안전대책 등의 업무를 밤낮없이 수행하던중 사무실 복도에서 쓰러졌다.

투철한 국가관을 가진 강사무관은 생전의 공훈에 따라 서기관으로 일계급 추서됐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2남1녀가 있다.

한전 765kV 건설처, 일본 UHV건설사진 자료집 발간

한전 765kV건설처(처장 : 한엽)는 일본의 UHV 건설사진 자료집을 최근 발간했다.

이 자료집은 초고압의 기초공사, 조립공사, 연선공사, 긴선공사 등 공종별로 시공장면을 공사시작부터 완료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 현재 765kV송전선로 건설공사에 참여한 시공기술자나 작업원 등에게는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진 자료집의 목차를 보면 일본 UHV송전 건설개요에서부터 기초공사, 심형기초, 철탑조립·운반, 가선공사, 애자 등으로 설명되어 있다.

한엽처장은 「765kV송전선로 건설시 국내에 체계적인 시공자료가 없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던 터에 여러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 자료집을 발간케 됐다」고 말했다.

정은현 765kV중부건설소장은 「이 자료집이 현장 작업관리에 활용되어 양질의 공사를 수행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기 바란다」는 바램을 피력했다.

또한 실무를 주관한 김신철 765kV중부건설소 송전부장은 「765kV송전선로를 건설하면서 제대로 된 참고자료가 없어 답답하던 차에 개인적으로 수집보관하던 자료와 주위 관계자들의 보관자료를 수집, 사진 자료집을 내게 됐다」면서 「아무췌록 이 자료가 공사의 적기준공과 품질관리에 초석이 되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계약 제도 시행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계약 제도가 시행된다.

통산부는 공공기관이 정부의 추가적 예산부담없이도 최신 에너지절약 설비를 갖추어 출선수범해서 에너지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과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계약을 체결토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이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공공기관에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를 행한 후 여기에서 얻어지는 공공기관의 에너지비용 절감액을 서로 배분토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즉 절약전문기업은 조명, 냉난방, 환기 등 종합적인 에너지 진단과 에너지절약에 필요한 투자를 시행하며 공공기관은 추가적인 예산 부담없이 계약기간중에 절감비용의 일부를 배분받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개념의 에너지절약사업은 이미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널리 활용,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통산부는 이 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금년안에 총무처, 재정원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끝내고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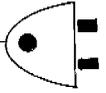
이를 위해 정부 공공건물중 절약잠재량이 큰 건물들을 대상기관으로 선정해 절약전문기업과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키로 했다.

또 제도의 조기정착과 절약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에너지절약 우수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포상과 절감된 비용일부를 복리후생비로의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고품질 전기공급 정밀측정기 개발

대형공장이나 빌딩 등 전기를 많이 쓰는 곳에 고품질의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를 빛을 이용해 정밀측정할 수 있는 광MOP가 개발됐다.

한국전기연구소 김요선·김영주박사팀은 태광전기와 공동으로 지난 1년간 3억원을 들여 0.001W



단위의 미소 소비전력 변화까지도 제량가능한 22.9kV급 수전용 광MOF 개발에 성공했다고 최근 밝혔다.

MOF(Optical Metering Out Fit)는 전압과 전류의 크기를 측정해 고품질의 전기가 수요처까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전력설비이다.

이번에 개발된 광MOF는 도체주변에 설치한 센서를 통해 빛신호를 보내 되돌아오는 빛을 분해, 전압과 전류의 크기를 계측하는 것으로 신뢰성이 높은게 장점이다. 또 절연성이 높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으며 기존 센서에 비해 100분의 1 정도로 소형 경량화됐다. 특히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내장, 계측지점 전력변화 데이터의 영구보전은 물론 원격점검도 가능하게 설계됐다.

기존의 전식 MOF는 기계적 접촉방식으로 전압, 전류의 크기를 측정, 전기적 절연 유도전류 외부잡음 등의 영향을 받아 측정에 오류가 많았으며 사고 또한 잦았다.

감박사는 「광MOF를 이용하면 수요처의 요구 사용전력량, 유효 및 무효전력, 시간대별 전력량 등의 정보를 정확히 모니터링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감박사는 또 「현재 한국전력연구원의 22.9kV급 수전반에 기존설비와 병행 설치해 비교시험중」이라며 「이번에 접목된 기술은 대규모 소비처의 전력사용량 제량방식에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관리공단, 고효율조명운동 3차 약정식 및 에너지절약 간담회 개최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 이기성)은 고효율조명운동의 실천 주체인 기업체의 참여도를 높이고 범국민적 홍보를 위하여 「고효율조명 제3차 약정식」을 개최하고 동절기 에너지절약 추진에 있어 민간부문의 협조방안 모색을 위한 민간단체장들과의 「에너지절약간담회」를 지난 10월 21일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국화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약정식에는 삼성전자(주), 현대전자산업(주), 대우중공업(주), 포스코개발 등 29개 기업이 각 사업장의 조명기기를 에너지절약형 고효율 조

명기기로 교체하는 계획에 대한 약정을 했다.

이는 지난 3월 및 6월에 47개 기업들의 1, 2차 참여약정식 이후 세번째 행사로서 최근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전력수요의 효과적 관리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번 참여약정기업들도 “고효율조명 심벌사용권”을 부여받게 되는데,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업들의 추상적 환경이미지 광고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고효율조명운동참여가 대외적으로 기업의 공익적·친환경적 기업으로의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 외 소 식

연속 온도기록기

일본 NPS(주)가 공조기기, 냉동·냉장트럭, 식품관리, 토양온도관리, 어패류 양식 등의 시방 용도에 적합한 「연속 온도기록기」를 발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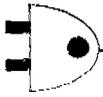
이 제품은 LCD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단번에 확인되고 배터리를 내장하고 약 2년간 전지 교환이 필요없다.

겉로하여도 사용이 가능, 방수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심 약 1m 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MS-WINDOW에 대응, 데이터 표시가 윈도우 형식이기 때문에 간단히 데이터의 검색, 관리를 할 수 있다.

에너지 로거

미국 와트 스토퍼사는 최근 인텔리타임 프로로거(모델명 IT-100)를 개발했다. 로거는 측정해야 할 양을 일정시간마다 자동적으로 입력시켜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그림위에 플롯하는 기계를 말하는데, 이번에 개발된 기계는 에너지에 대한 측정량을 기록하게 된다.

즉 데이터가 모아지는 일정기간동안 빌딩내 시설들이 운행될 때 또는 운행되지 않을 때의 에너지의 추이, 조명이 켜지고 꺼질 때의 에너지량을



측정하게 된다.

또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측정물건에 대해 상위 컴퓨터에서 하위 컴퓨터로 정보전송을 자동적으로 실시한다.

할로겐 금속전구

최근 필립스 조명회사에서는 할로겐 금속전구를 선보이고 시판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발된 할로겐 금속전구는 램프안에 할로겐가스를 봉입하여 방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혁신적인 세라믹 방전관이다.

이 전구는 현재 70W, 1백W짜리 두 종류가 시판 중이며 열효율은 1W당 95ml 이상이다.

전동기 전압조정기

미국 카터필라스는 최근 사용자들이 전압을 조절하기 위해 전압조정 지표를 용이하게 변형할 수 있는 전압조정기를 개발하고, 본격 시판에 나섰다.

3천A까지 측정 가능한 변류기

미국 엠프로버 인스트루먼트사는 최근 집계부문의 직경을 크게 해 측정범위를 대폭 넓힌 후구메터식 변류기(모델명 HACT=1/10)를 개발, 시판에 나섰다.

이 제품은 약 5×1.25인치 크기의 부스바까지 걸 수 있으며 케이블의 경우에는 2.75인치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이 제품은 3천A까지 측정 가능하며 오차 ±1%의 정밀도를 가졌다.

이 제품은 IEC384 기준에 따라 제작됐다.

회 원 (사) 소 식

삼화기연, 글로벌 생산체제 구축

과전류 계전기업체인 삼화기연(대표: 김인석)이

중국 천진에 이어 베트남·말레이시아 등에 생산기지를 잇따라 설립, 글로벌 생산체제를 구축한다.

삼화기연은 최근 세계 최초로 전자식으로 과전류를 차단해 주는 계전기를 개발, 세계 1백50여개국에서 특허를 획득함에 따라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에 6개의 생산기지와 1백개의 대리점망을 구축키로 했다.

전기안전인 체육대회 개최

지난 10월 11일 성남·광주·하남지역 전기안전인 체육대회가 경기도 광주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한국전기안전관리서비스의 7개업체 60여명이 참가한 체육대회에서는 축구·족구·배구 등의 경기를 펼쳤다.

이날 행사는 전기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자리로서, 종합우승은 전기안전공사 성남지점팀이 차지했다.

사무실 이전안내

- 상 호 : 삼화기연(주)
- 대 표 자 : 김인석
- 이전일자 : 1996년 10월 18일
- 이전주소 :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60-17호 유원B/D
- 전화번호 : (02)3473-2340, 3474-2340
- 팩 스 : (02)3473-1159

축하드립니다

- ◎ 대구지부 이해광회원 장녀 결혼('96. 10. 13)
- ◎ 본부 업무실 권명숙씨 결혼('96. 10. 18)

삼가 조의를 포함니다

- ◎ 서울 남서지부 조명석회원 모친 별세('96. 10. 12)

